



■ '정태영삼 버스' 삼척. 태백 노선의 관광명소 하이원추추파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위스식 산악열차 인클라인 트레인. 1963년 철거된 강삭철도를 복원해 표고차 200m, 15.6도의 경사구간을 오르내린다. ■ 세계 유명 열차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직접 탑승할 수 있는 하이원추추파크의 미니트레인. ■ 7.7km의 코스를 자랑하는 하이원추추파크 레일바이크. 다양한 테마로 꾸민 12개의 터널을 지나는데, 경사진 철길을 내려오면 서 국내 레일바이크 중 최고 속도를 체험할 수 있다. ■ 아가자기한 풍경이 예쁜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



## ■ 비슷하지만 다른 목디스크와 어깨질환

### 어깨질환, 담 걸린듯 식은땀 나 목디스크는 팔·다리까지 통증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신모 씨는 최근 어깨와 손에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아 병원에 갔다. ‘운동을 하다 어깨에 이상이 생겼구나’하고 생각했는데 병원 진단 결과 뜻밖의 목 디스크 진단이 내려져 크게 당황했다. 신 씨가 어깨와 손 등의 저릿한 증상을 가볍게 여긴 것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업 특성상 땃목의 빠근함과 무거운 느낌은 이전에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 ●목디스크 원인의 첫 번째는 잘못된 자세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유독 목 디스크 비율이 높다. 장시간 컴퓨터에 시선을 고정해 채 업무를 보는 경우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린 자세를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경추의 변형을 불러온다. 목에 위치하고 있는 척추인 경추의 정상적인 형태는 완만한 C자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반복될 경우 C자가 점점 일자로 변형되며 일자목이 된 이후에는 경추 자체의 탄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경추의 퇴행성 변화는 이전보다 빨라지게 된다. 퇴행이 진행된 경추는 사소한 외부 충격에도 손상된다. 이 때 목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인 디스크의 이탈을 초래하는 경우가 목디스크다. 이렇게 빠져 나온 디스크는 주변 신경을 자극하며 압박을 받은 신경은 목뿐 아니라 어깨와 팔까지 영향을 주어 이상증상을 나타낸다.

#### ●목디스크와 어깨질환 무엇이 다를까

목디스크와 혼동되기 쉬운 대표적인 어깨질환이 근막동통증후군이다. 근막동통증후군은 ‘담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증상이다. 근막동통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근육과 근막이 뭉쳐 단단하게 변하는데 특정 부위를 직접 자극할 때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 때 발생하는 통증의 정도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심하다.

반면 목디스크는 목 부위의 이상증상과 더불어 어깨통증, 이외에도 팔과 손까지 신경증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통증을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팔과 손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또 증상에 따라 팔이 나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생기며 심할 때는 마비증상까지 나타난다.

#### ●‘경막외신경성형술’ 30분이면 수술 끝

목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비수술치료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척추질환을 위한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수술 이후에도 염증과 유착으로 통증이 재발했다던가 수술적 치료를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치료 과정에는 주사바늘 형태의 치료기구인 ‘락즈 카테터’가 사용된다. 락즈 카테터는 세계 3대 척추 명의 라츠 박사가 고안한 지름 2mm 치료기구다. 이 얇은 형태의 기구를 디스크 손상이 발생한 병변 부위까지 밀어 넣는 것이 첫 과정이다. 이후 특수약제를 주입해 유착된 신경과 부종, 염증 등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경막외신경성형술에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장점은 시술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30분 이내에 시술을 완료할 수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유강준 원장은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전신마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환자라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 더욱이 나이가 많은 환자라 하더라도 신체적 부담이 크게 따르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 신세계면세점 20일까지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신세계면세점은 20일까지 기부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실시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 회장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회원이 아니면 신규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에 가장 어울리는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한 3명에게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그랜트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캐치프레이즈는 신세계면세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여행객의 마음을 설렘과 희망으로 최대한 표현해 짧은 문구나 표어로 작성하면 된다. 시상자 발표는 10월 12일이다.

# ‘정·태·영·삼’ 버스 타고 강원도 한바퀴

## 강원도-강원랜드 원원...‘정태영삼’ 투어

‘정선·태백·영월·삼척’ 관광 콘텐츠 공유 추추파크·장호어촌마을·황지시장 등 체험

“오늘 하루, 버스로 편하게 이동하면서 즐기세요.”

늦여름 햇살이 화창했던 지난 금요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의 컨벤션 호텔 앞. 빨간색 버스 안에서 가벼운 차림의 승객 30여명이 기사의 안내방송을 듣고 있다. 막바지 여름휴가를 즐기러 온 투숙객으로 이날 삼척과 태백을 돌아보는 하루 나들이에 나섰다. 요즘 지역연계의 관광콘텐츠로 주목을 받는 ‘정태영삼 버스’다.

#### ●추추파크 레일바이크, 장호항 스노클링...지역 명소 접근성 불편 해소

아침 9시에 강원랜드를 출발한 버스는 한 시간 남짓 달려 삼척 하이원추추파크에 도착했다. 철도 폐선 구간을 활용해 스위치백 기

차부터 인클라인 트레인, 레일바이크, 미니트레인을 체험할 수 있는 철도 테마파크이다. 고산지대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고, 주말에는 인클라인트레인 역 근처의 톨리장도 즐길 수 있다.

하이원추추파크에서 점심 때까지 머문 뒤 다음 목적지는 장호어촌체험마을. 걸어서 30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아담한 포구로 동해 맑은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투망카누와 스노클링 체험이 있다. 버스는 승객들이 여유 있게 마을을 돌아보고 체험상품을 이용하도록 3시간 정도 넉넉하게 장호항에 머물렀다. 이어 돌아오는 길에는 마지막으로 태백 황지시장을 둘러 지역 특산물 쇼핑과 재래시장 구경의 아가자기한 재미를 누릴 수 있었다.

‘정태영삼 버스’의 정식 명칭은 ‘정.태.영.삼 나들이 버스’로 폐광 4개 시·군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뜻한

다. 폐광 4개 시·군이 있는 강원도 남부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관광하기는 불편하다.

‘정태영삼 버스’는 이런 고민을 푸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하이원추추파크, 장호어촌체험마을, 태백 황지시장을 돌아보는 삼척·태백 노선을 비롯해 동강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영월 노선, 정선 5일장과 화암동굴이 있는 정선 노선 등을 만들어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당초 여름휴가철만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으나 7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이용객이 1639명으로 기대를 훨씬 뛰어 넘었다. 덕분에 최근 10월까지 운영을 연장했다.

#### ●투어 이용객 편의, 이동지역 안내 등 섬세한 서비스 개발 필요

강원랜드 변창우 마케팅 상무는 “연간 500여만명이 강원랜드

를 찾는데, 이들이 자연스레 4개 시·군을 관광하는 계기를 만들어 강원랜드와 지역 관광산업이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랜드도 지역을 활용한 관광아이템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랜드는 게이밍 시설과 골프, 스키장 등을 갖춘 종합 레저리조트지만 다른 지역 리조트에 비해 관광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다. ‘정태영삼 버스’는 리조트에서의 휴양과 오락 외에 새롭게 지역관광 수요를 만들어 투숙기간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카드다.

물론 시범운영 중인 ‘정태영삼 버스’는 아직 관광상품으로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일본 JR홋카이도의 트램을 버스로 신가포르 창이공항의 시티투어버스처럼 이동과정에서의 꼼꼼한 지역 안내, 투어 이용객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섬세한 서비스는 부족하다. 하지만 모처럼 지역과 대형 리조트가 함께 ‘원·원’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기대가 크다.

삼척·태백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트래블 쿵, 여행업계 첫 협동조합 브랜드 설립

### TRAVEL COOP

한국 여행업 협동조합

‘여행업계의 FCB아르셀로나와 선키스트를 꿈꾼다.’

8월 15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트래블 쿵’(Travel coop)은 여행업계 최초의 협동조합 브랜드다.

우리나라 아웃바운드(국내에서 해외로 여행) 시장은 지난해 1608만 명의 해외여행객 숫자가 말해주듯 해마다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시장 구조는 대형 여행사들이 상품유통을 주도하고, 중소 여행사들은 마케팅과 유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빈인빈, 부익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트래블 쿵’은 40여개의 중소 여행사들이 모여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싸게 전달하겠

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여행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은 등산,트레킹 전문 여행사인 해초여행사의 석재인 대표가 맡았다. 석재인 이사장은 “중소여행사들은 좋은 상품이 있어도 유통망이 취약하고 마케팅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조합 플랫폼을 통해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은 세계적인 음료 기업인 미국 선키스트나 스페인의 프로축구 구단 FC바르셀로나와 같은 성공사례가 있다. 하지만 여행업에서 협동조합은 국내외적으로 돌보이는 선례가 없다. 특히 그동안 중소여행사 상품 이용에서 종종 불거졌던 소비자 불만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과연 해소될

40여개 중소여행사 상품 싸게 전달 선키스트·FC바르셀로나 성공사례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석 이사장은 이에 대해 “뭉쳐야 된다는 중소여행사가 가진 절실함의 구현이 트래블 쿵이다”며 “기존 개별 여행사들은 힘들었던 여행정보와 배상책임보험 등을 조합 차원에서 가입하고, 고객관리 및 상품 책임도 조합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쿵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초여행사를 비롯해 신흥항공여행사, 세계로 여행사, 트래블패스, 허큘베리핀, 핀소프트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40개 여행사 250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4일까지 오픈 기념으로 회원 가입시 선착순 1000명에게 2만 콤미(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겨울상품 조기예약 이벤트도 30일까지 진행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 8월 해외여행 몰렸다...여행업계, 최다 송객 경신

메르스 사태로 여름휴가가 평소보다 늦은 8월에 몰리면서 해외여행 숫자가 급상승했다.

국내 여행업계 ‘빅 2’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따르면 8월 해외여행 송객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 모두투어의 경우 8월 12만6000명의 해외 패키지 송객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4%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모두투어

창사 이래 최다 송객이다.

하나투어도 8월 20만9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올 상반기 중에 역대 월간 최다였던 1월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업계는 6월 중순 터진 메르스 사태가 7월까지 이어지면서 여행객들의 불안심리로 인해 여름휴가를 8월로 늦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여행 증가세는 9월 들어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계속될 전망이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추석연휴 예약이 이미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숫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긴 여행기간이 필요한 유럽지역이 이미 두 배 이상의 예약을 기록하고 있다. 모두투어 역시 9월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10월 역시 현재까지 전년 대비 2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4분기 매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 대방건설은 광주전남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차를 10월에 분양예정이다.

전용 84~116㎡형 765가구 규모다.충북혁신도시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모아엘가’ 574가구를 10월에 분양한다. 양주건설도 ‘충북혁신도시 양주내안예’를 842가구를 연내에 분양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혁신도시 아파트는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모두 인기가 높다”며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면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